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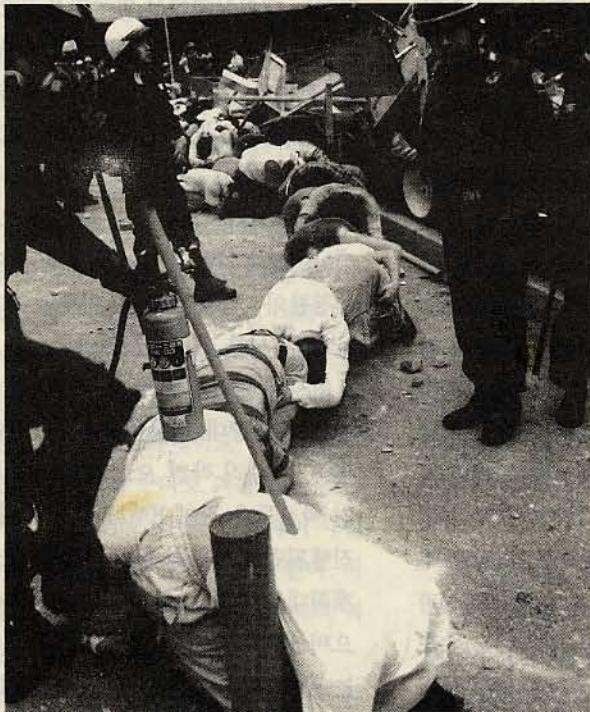


통권 59호

5주 | 1996.9.17

#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6. 9. 17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8월 20일 종합관에서 연행한 학생들을 경찰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채 진압봉으로 구타하는 장면

경찰헬기 12대 동시 최루액 살포, 하루 최다 2만1천명 경찰 시위진압 동원,

2천여명의 경찰특공대 겹거작전 투입,

하루 최다 8차례 교내 해산작전, 하루평균 최루탄 1천발 발사,

전경·학생 양측 부상자 1천5백여명 추정, 연행 5천8백48명, 구속 465명….

이는 8월 10일부터 11일간 계속된 8·15 통일대축전 행사 관련

이른바 '한총련 사태'가 남긴 사상초유의 기록들이다. 이번 한총련 사태는

이러한 진압방식, 연행자 수 등 진압의 양상 뿐 아니라 경찰폭력, 인권침해 상황에서도

과거 그것을 능가했다.

## 다시 드러난 문민 폭력

**범** 청학련 통일대축전이 있었던 연세대 교정은 참혹한 전쟁터 그대로였다.

며칠째 쏟아붓는 최루액과 다연발 최루가스로 학생들이 쫓겨들어간 과학관, 종합관은 뿐연포연에 덮인 채 마치 저주받은 무리들의 소굴인양, 사람 세상의 손톱만한 인정마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굽주리고 부상당한 학생들에게 먹을 물과 치료약을 넣어 주려는 의료인과 학부모들의 인도주의와 모정마저 처참하게 거절당했다. 하루아침에 귀한 자식이 좌경용공, 폭력 집단으로 몰려버린 학부모들은 망연자실 한 채 가슴을 찢는 헬기의 진동음과 절세없이 쏟아붓는 붉은 최루액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렸다. 이공대 건물에는 '우리는 집에 가고싶다'는 큰 글씨가 내걸려 있었다. '우리 자식들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학부모마저 닭장차에 실려나갔다. 부상학생의 참혹한 모습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직격탄으로 실명위기, 뇌사상태에 빠진 학생, 두개골 합물 등 많은 부상학생이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나 수백명이 화상과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나 건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 학생들은 민가협 등 여러 곳에 사회원로들이 이 극한 상황을 풀어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리고 그들은 '경찰이 학교에서 물러나고, 연세대 보직교수들의 제안대로 신촌 지하철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협상안을 받아들여 농성을 풀고 지도부는 경찰조사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통일축전 참가자 전원체포'를 거듭 밝힌 경찰은 더욱 두텁게 포위(?)망을 조일 뿐이었다. '단순가담자 최대관용'을 밝히는 같은시간, '시위학생에게 총기발사'를 발표하고 있어, 나갈 틈을 틀어 막은 채 해산을 촉구하는 격이었다. 고통은 동원된 전경들에게도 있

었다.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속에 솜옷 전투복을 입고 방패와 진압봉, 헬멧과 화생방 장비까지 갖추고 밤낮없이 학생들에 대한 공격명령을 받고 있었다. 이 숨막히는 대치상태에서 파국만은 막아보려 종교계, 사회단체, 일부 정치권, 학교 당국이 분주히 뛰어다녔지만, 전원체포의 완고한 지시에 속수무책이었다. '친북 폭력집단'이라며 날마다 왜곡보도하던 어떤 언론조차 사설에서 '진압작전이 현장경찰의 판단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고위층의 눈치를 보면서 이루어지는 식이어서 불안하기 짜이없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의 '진압작전'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무시한 채 강행되었다.

리시아제 죄신에 헬기를 비롯한 수십종 중장비와 전경 84개 중대, 경찰특공대 총 1만여 명이 벌이는 이른바 '독수리 작전'으로 심한 상처와 굽주림으로 지친 학생들을 강제연행하였다. 이렇게하여 평화롭게 진행되던 범청학련 통일축전행사는 당국의 전원체포 계획대로 모두 5,848명이 연행되고 462명이 구속되었으며 3,341명의 불구속 입건, 373명이 즉심에 들려지는 일찍이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탄압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탄압은 '한총련 죽이기'로 이어지면서 날마다 전국의 대학을 압수수색한다며 침탈과 불법연행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는 물론 이른바 문민이라는 도덕적 기반마저 송두리째 스스로 허물며, 법과 이성이 아닌 정략과 감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통일축전 행사와 한총련 탄압에서 나타난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그리고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개탄하며,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수사와 같은 반민주적, 반교육적 처사를 바로 그만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부 행사도 그만둔 채 자진해산, 집으로 가겠다는 학생들을, 그것도 수천명을 물샐틈없이 틀어막고 최루탄 공격으로 몰아부친 행위는 살상을 전제로한 교전국 적군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니 전장에서도 상대병사가 전투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일방적 공격은 하지 않는다. 부상당한 병사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받는데 제약받지 않는다. 치료약과 먹을 것, 여성용품을 막아버리는 물인간적 행위가, 어찌 국가가 국민에게, 더구나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학생연행과정에서 부상당했거나 탈진 상태의 학생들을 곤봉과 군화발로 차며, 머리채를 휘어잡고, 폐대고, 줄줄히 끓어앉혀 뒷머리에 손을 얹기 하고 머리를 땅에 박게하는 것은 일부 TV화면에서도 나올 정도였다. 피해자 신고사례에서 보면 여학생들이 당한 성희롱에서부터 깨진 유리바닥을 무릎으로 기어가게하고 연행버스 안에서 머리를 의자 밑에 숙이게 하며 무수한 구타, 경찰 조사에서도 구타와 욕설이 이어졌으며, 연행과정에서 구타로 피를 흘린 것을 시위 주동자 증거로 삼고, 쇠파이프를 들게하여 사진을 찍어 폭력시위자로 둔갑시키려고 했다고 한다. 미란다 원칙은 아예 사치스런 말이었다. 법치주의의 역행을 넘어 인간존엄에 대한 모독행위였다.

다음으로 정부가 통일축전행사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 전원을 체포한 것은 인권탄압과 함께 통일운동 탄압이고 국민기본권 침해이기도 하다. 통일축전은 올해에 갑자기 있었던 행사가 아니라 90년 이래 있어온 청년학생들이 평화롭게 문화행사가 주축이 돼 벌여온 순수한 통일운동이었다. 새롭게 주장되거나 방

법이 달라진 것도 없이 교정안에서 통일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표현했을 뿐이다. 학생들이 어떤 물리력을 갖고 무엇을 집행하려던 것도 아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민주 사회에서, 더구나 갈라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물론 통일방안이나 운동방법에서 정부 당국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당국이 밀하듯 학생들 주장이 소수의견이었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왜, 그들이 사법처리의 대상이란 말인가.

오히려 정부는 학생들의 통일운동 탄압에 앞서 분명한 통일 의지와 방안을 밝히고 학생들과 다양한 형식으로 대화를 통해 다른 점, 같은 점을 점검했어야 했다. 그리고 창구단일화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서 정신에 따른 여러 갈래의 민간교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나라와 거래를 그리고 미래의 조국을 염려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학생들이 앞장서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통일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 데서 비롯되기도 한 것이다.

어떠한 권위주의 통치방법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서도 확인되었다. 민주사회는 법치주의이고, 그 법은 국민 기본권이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의 심판도 반기전에 '폭력 살인집단'으로 단정하고 학생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성한 학생단체를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불법으로 깨려 하는 것은 단체 결성의 자유 침해이며 바로 권위주의 길을 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 경찰폭력 중단하고 구속학생 석방하라!!

## 우리 손으로 매듭지어야할 '80년대'

### 편집부

"늘 나로 하여금  
끼게 만드는 자식이지요."  
아들 백태웅 씨에게로  
흐르는 끊임없는 관심과  
마음씀의 길을 어머니는  
이렇게 표현하신다.

### 이직 끝나지 않은 80년대

이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십대 후반 이상의 모든 젊은이에게 80년대는 아직 풀지못한 숙제, 마무리하지 못한 일기장과도 같은 것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발자욱이 그 시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다소 성급하게, 미처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90년대를 맞이 하였지만 지나온 시대는 언제나 돌아다 보인다. 여러 편의 사회논문과 그 시대를 다룬 많은 소설가들의 작품들이 있었지만 한번도 만족스럽게 그 시대의 성과와 한계를 본격적으로 펼쳐놓고 들여다 보지 못했다. 아직도 비슷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만 되고 있고 한 시대를 마감하기란 여러가지로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다.

87년 6월 대투쟁이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던가 도피중이던 아들의 수배해제와 무사귀환을 촉구하는 백태웅 씨의 어머니의 글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 백태웅 씨는 그때 잠시 풀려나기는 했지만 '사노맹' 사건으로 또다시 시작된 긴 수배생활과 체포, 징역생활로 여전히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80년대는 그의 삶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를 감옥에 두고 있어야만 하는 우리 삶에서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 80년대, 역사의 한 복판에서

"늘 나로 하여금 끼게 만드는 자식이지요." 아들 백태웅 씨에게로 흐르는 끊임없는 관심과 마음씀의 길을 어머니는 이렇게 표현하신다. 백태웅 씨(34세)는 류정옥 어머니(63세)의 2남3녀 중 둘째아들로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다.

1981년, 백태웅 씨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게 되자 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위 친지들에게 몇 차례나 잔치를 베풀어야 할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부러워하였다. 세심하고 자상한 아들은 방학때 집에 내려와 올라가게 될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놓을 줄 모른다. "돌아서 가다가도 다시와 또 손을 잡고, 손을 잡고... 그랬지요." 십 년도 훨씬 전의 세월을 더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느새 촉촉히 젖어드신다.

폭압적인 5공 정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백태웅 씨의 대학생활은 그로 하여금 법학도의 길을 순탄하게 걸어가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무수한 선후

배들과 친구들이 최루탄 연기 속에 끌려가고 강제징집되어 갔던, 심지어는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던 어지러운 시절이었다.

백태웅 씨는 1984년, 서울대 학도호국단장을 맡게 된다. 그리고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어 김해교도소에서 첫번째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때 아버님께서는 그의 출감도 보지 못한 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놓고서 맞이한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앞에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그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그때의 한과 몸부림이 아직도 온몸에 병으로 남아있어요."

출소하고 난 다음에도 그의 수배생활은 계속 되었다.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지 않은 이상 부당한 정권에 대한 그의 저항이 계속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런지도 모른다.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아들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셨다. 어머니께서는 그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가협의 10년의 역사를 함께 이어오고 계신다. "태웅이가 수배에서 풀려나 3년 만에 만난 날이었어요. 껴안고 실컷 울고 있는데 주위에서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더군요. 바로 유가협 어머니들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돌아온 자식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죽어간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떨지. 얼른 울음을 그쳤지요."

#### 젊은 장기수 - '사노맹' 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

80년대 내내, 그리고 수배생활을 하는 동안 백태웅 씨는 이땅 민중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곳곳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때 접한 현실을 기초로 백태웅 씨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땅에 도래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한 조직적 준비로 그는 '사노맹'을 결성하였다.

"저와 '사노맹'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는 파괴와 부정의 운동이 아닙니다. 진보와 건설의 운동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 자신이 그속에서 진정 새로운 사회의 주역이 되는 인간형으로 변화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1992년, 백태웅 씨의 최후진술 중에서)

하지만 안기부와 검찰은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조직성원 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돌입하였다. 1990년 1차 검거에 이어, 박노해 시



▲ 지난 8월,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 중의 하나인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을 하기 위해 이들의 수번을 단 수의를 입고 오열하는 유정옥님

## 로 마음지어이한 30년대

“그곳에서  
면회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는 마음과,  
면회하러 그곳으로 가는  
마음은 달라요.  
갈때의 기분과 느낌이 더  
답답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안에 있을 때  
저를 만나러왔던 가족들의 마음,  
친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생각해보고 있지요”

인 등이 체포된 2차 검거, 그리고 1992년 4월의 3차 검거에 백태웅 씨는 체포당하고 만다. 체포된지 4일 만에 안기부에서 만난 아들은 곤봉으로 맞아 온몸이 피멍투성이였다고 한다. “그때의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고생하고 있어요. 원편 발목이 곤봉에 맞아 쑥 들어갔지요.”

사형을 구형받은 백태웅 씨는 1심재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구형받던 날 울부짖으며 판사석에 뛰어올라가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기형의 선고가 떨어지자 서초동 법원의 12층 담당판사실로 올라가셨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젊으나 젊은 내아들을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겠다는 것인지 어디 한번 똑바로 들어보시고 싶었던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백태웅 씨는 지금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수의와 포승줄에 묶여 만난 약혼자들

3년간의 수감생활 끝에 지난해 출소한, 백태웅 씨의 약혼녀 전경희 씨(34세)는 ‘사노맹’ 비서실장으로 그와 함께 활동하였다. 1989년 양가친지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약혼식을 올렸던 이들은 체포와 수사, 재판의 기나긴 나날 들 동안 딱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것도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그때의 심정이 어떻더냐는 조심스러운 물음에 전경희 씨는 한참만에 입을 연다. “뭐랄까, 내가 그 푸른 수의를 입고있을땐 몰랐는데 남이 입고있는 모습을 보니까 새삼스럽기도하고, 더구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더욱 아려오기도 하고...” 차마 말끝을 맺지 못하는 전경희 씨에게 더이상의 답변을 재촉할 수는 없다.

며느리의 면회에도 어머니께서는 열심이셨다. 원주에 들러 아들 백태웅 씨를 만나고 나면 전경희 씨를 만나려고 청주로 향하신다. 교도소에 이어 또 교도소로 향하는 그 길은 얼마나 가슴에이고 힘든 길이었을까.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전경희 씨가 출소하는 그날까지 꼿꼿이 걸어오셨다. 백태웅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원주에 막 다녀왔다는 어머니의 옆에 이제는 전경희 씨가 있다. 혼자가 아닌 두사람이 든든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 수는 없다.

“그곳에서 면회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는 마음과, 면회하러 그곳으로 가는 마음은 달라요. 갈때의 기분과 느낌이 더 답답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안에 있을 때 저를 만나러왔던 가족들의 마음, 친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생각해보고 있지요.” 전경희 씨는 지금 백태웅 씨의 석방운동과 ‘사노맹’ 구속자 후원모임인 <민들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 이제는 청산되어야 할 역사

80년대는 그 시작과 더불어 백태웅 씨가 그의 짚음을 모두 바쳐 생각하고 투쟁하고 조직해왔던 시기였다. 그의 짚음과 양심을 아직도 감옥 안에 가두어두고 있는 이상 80년대는 아직 우리에게 지나간 낸대가 아니다. 수배와 체포, 감옥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불합리와 비상식의 80년대는 아직도 우리에게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하긴 어디 끝나지 않은 것이 80년대 뿐이겠는가. 70년대, 60년대, 심지어는 50년대의 가슴아픈 역사까지 우리는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깨끗한지, 요즘같아서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어도 지루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운동장에 나가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자유롭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어머니께 보낸 백태웅 씨의 1996년 7월 11일자 편지중에서)

백태웅 씨는 요즘 많은 책들을 읽고 사색하며 자신을 단련해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감옥 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어져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깊고 진지한 주제를 화두로 삼고 사색 중이다.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백태웅 씨는 감옥 안에서 가곡 ‘가고파’를 즐겨 부른다고 한다. 최근 그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노래부르고 있다. “내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그날 그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찬얼음 센바람은 들지 못하는 그 나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르는 그의 노랫소리가 고향 앞 바다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울려펴지길 그날은 언제일까. 하루빨리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본다. 백태웅 씨와, 그리고 모든 양심수들과 함께 90년대의 우리의 역사, 그리고 다가올 2000년대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때 진정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는 시작 될 것이다.



▲ 백태웅님의 약혼녀 전경희씨와 함께 아들의 사진을 들고선 유정옥님



## 성경화 회원을 만나

사람을 만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한번 더 거울을 보게 되고, 늘 덥수룩하게 하고 다니던 머리칼에 빗을 대게 한다.

“나는 까만색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있을 꺼예요.”

도무지 서른여덟살로는 보이지 않는 성경화 회원은 모자만 까만게 아니라 온통 까만색 옷을 입고 있었다. 까만색 샌달에, 까만 가방까지. 한가지 색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자기세계가 느껴진다. 특히 원색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성씨 성을 가진 사람은 잘 보지 못했는데… 희귀성이죠?”

“아니요! 왜 성삼문, 성춘향. 다 아는 사람 아니예요?”

예쁜 눈매와는 달리 결절한 목소리가 사람을 끈다. 웃음소리도 참 걸지다.

### 내 손으로 번 첫 2만원

성경화 회원은 웃장사를 한다. 남대문에 ‘1평도 안되는’ 가게를 얻어 부녀복을 팔고 있다.

남대문에서 가게를 시작한 것은 5년 전이다. 그전까지는 결혼 후 10년간 집에서 살림만 하던 성회원은 친구의 권유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다. 집 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서,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시작하였다. 성회원에게 가게는 곧 세상으로의 출구였다.

성회원이 양심수 후원회 회원이 된 것은 순전히 본인의 적극성에 의해서다.

“한겨레 신문에 양심수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봤어요. 그 기사를 보고 한겨레신문에 전화를 걸어 민가협 전화번호를 물어 봤죠. 그게 90년이니까 벌써 6년전이네. 그 때 후원회에 전화를 걸어 얘기했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면회도 못 가고, 편지도 못 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씩 회비를 내는 일 밖에 없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길래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됐어요.”

성회원은 당시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 14만원중 2만원을 회비로 내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남편과 무려무려 자라는 두 아이의 엄마가 스스로 번 돈에서 회비를 낸 것이다. 그 후로 6년동안 성회원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후원회비를 내고 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 같아.

“부끄럽죠. 아무 한 일도 없는 제가 모범회원상을 받았으니… 진짜 제가 회원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회원은 올 정기총회에서 모범회원상을 받았다.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다리에 기부스를 감은 채 목발을 짚고 나와 상을 받으며, 쑥스러움에 몸돌바 몰라하던 성경화회원을.

성회원은 딸만 여섯인 딸부잣집의 둘째딸이다. 서울여상을 다닐 때에는 연극반에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응원단에 속해 치어걸로 활동할 만큼 성회원은 아주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후, 집에서 생활할 때만 해도 성회원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동창중에 친한 친구가 저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졸업하고 제일제당 경리과에 다니면서 덕성여대 야간대학을 다닌 친구네, 장학금을 받은 것이 힘이 돼 다시 정식으로 공부를 해 연대 생물과에 진학한 친구가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 다시 제일제당 연구원으로 들어간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말』지를 구해서 한 번 보라고 권하더군요. 그 때 광주항쟁에 관한 사진을 처음 봤는데, 당시만 해도 정치에 대해 백지상태였던 저는 『말』지에 실린 끔찍한 사진들을 보고 아주 기절초풍했죠. 그 후로 『말』지를 정기구독하게 되었고, 친구에게서도 이말 저말 주워 들으며 조금씩 세상을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요즘도 눈물이 평평나요.”

성회원은 단지 회비만 낼 뿐 다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총회에 참석해 몇번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순수해 보여 친해 지고 싶’지만, 집안 일과 가게 일로 늘 분주한 성회원은 꿈을 내기가 힘들다 한다.

“장기수 선생님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휴, 어떻게 그래요. 나는 선생님들 얼굴도 제대로 못봐요.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을 살면서까지 자기 신념에 철저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 속으로 감탄만하지, 어떻게 감히 제가 그 분들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그러겠어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수줍음을 나타내는 성회원의 모습에 웃음이 난다. 괄괄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인 성회원의 마음속에 숨겨진, 소녀처럼 고운 삶이 엿보여서다.

‘내가 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이 생각하는 나는 참 멋져’ 서, 자신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벗고 요즘은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재미를 느낀다는 성회원.

‘아주 조금씩’이라고 얘기하지만, 성회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다. 사진도 초급, 중급과정을 거치고 현재 고급반에서 수강하고 있고, 몇 달 전부터는 미술도 배운다.

『후원회 소식』지를 읽으면서 요즘도 ‘눈물을 평평 흘린다’는 성회원의 따뜻한 마음이 이제 더 가까이 우리 회원들에게, 선생님들께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 가슴속에 살아숨쉬는 지리산처럼

### 편집부

마지막 빨치산, 여성 전사, 정순덕.

나는 붉은 얼굴에 장부같은 커다란 체구를 상상하며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빨래를 널다 우리를 맞아 주시는 정순덕 선생님(64세)의 아주 작은 체구와 장난많은 소년같은 얼굴은 내 부풀었던 상상력을 깨뜨렸다.

하지만 상체가 휘청대도록 다리를 몹시 절며 우리 쪽으로 걸어 오는 선생님의 모습과 첫 인사로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강한 아귀힘이 다시 나를 긴장시켰다.

선생님은 1933년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나셨다.

『정감록』을 공부하던 할아버지가 지리산으로 들어가시면서 지리산자락 아래마을이 선생님의 고향이 된 것이다.

작은 땅을 자작도 하고 또 남의 땅을 빌어 소작도 하던 아버지 정주삼 님은 '촌에서는 지식인 축에 드는 분' 이었다. 마을 서당의 훈장이 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오지 못하면 대신 학동들을 가르치는 접장을 하실 정도의 한문지식을 가진 분이었다. 그러나 정작 선생님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학교가 멀기도 했지만, 봉건사상이 농후한 아버지는 '여자가 글을 배우면 나중에 시집을 가서 자꾸 친정에 편지해 썼는다'며 학교에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참 고루한 분이셨지."

선생님은 해방이 되고 나서야 청년들이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야학에 다니며 글을 깨우친다.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선생님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이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이유에선지 일본놈들이 각

가정마다 공 하나와 세계지도 한 장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마 일제가 세계전쟁을 일으켜 침략한 곳을 알라고 나눠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지도를 보고 아버지는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이다. 지금은 일본에 빼앗긴 상태지만 되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 남편을 찾아 지리산으로

49년, 선생님의 나이 17살때부터 선생님은 좌우의 대립을 생생하게 겪어야 했다.

48년 여순 사건 이후 생존자들이 지리산으로 입산하며 국군과 빨치산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지리산 밑 마을이 고향인 선생님의 가족들은 국군의 소개 명령에 따라 종고모댁에서 거의 한 해를 지내야했다. 빨치산 토벌에 나선 국군이 6개 면을 소개시키고 집들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5남매가 넉넉치 않은 친척집에 얹혀 사는 것은 고역이었다. 선생님의 부모님들은 생각다 못해 '어차피 남의 집 사람이 되어야' 할 둘째딸을 시집보내는 편이 낫겠다 생각해 50년 1월 선생님을 결혼시켰다. 당시의 형편으로는 감히 잔치는 엄두도 못낼 처지라 선생님은 그야말로 물 한 그릇 떠 놓고 혼례를 올리셨다. 총소리가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의 혼례였다.

선생님이 고작 7개월의 결혼생활을 하던 중 전쟁이 일어났다.

좌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그때 선생님의 남편은 인민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전세가 바뀌어 국군이 다시 마을에 들어오자 남편은 인민군을 따라 지리산 깊숙이 들어간다. 남편있는 곳을 대라며 국군들로부터 모진 고통을 겪던

선생님은 남편을 찾아 3일 분량의 식량과 옷가지를  
싸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지리산에 올라가 만난 남편은 '산청군 유격대'에  
있었고 이후 선생님은 '진양군 유격대'의 대원이 되  
었다. 51년 2월의 일이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빨치산 투쟁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참 큽니다. 적은 것을 여럿이 갈라 먹을 수 있  
도록 요리를 해야하고, 또 부상병을 간병하는데도 아  
무래도 섬세한 여성들이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죠. 하  
지만 그 반대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다 보니 후퇴  
때 낙오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 죽을 힘을  
다해 부대를 찾아 나서야 하기도 하고, 또 여성만이  
가지는 생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후 국군은 빨치산 토벌 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쳤  
고, 많은 빨치산은 지리산을 붉게 물들이며 흙이 되어  
갔다. 선생님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52년 1월  
18일이었다. 그 만남을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다른 사  
람을 통해 남편이 전사했음을 알게 되었다.

53년 7월 휴전협정 조인 후 산에 남아 있던 빨치산  
들은 소부대로 분산하였다, 휴전협정 후 6개월안에  
열리게 되어 있는 정치협상의 결과를 기다리며. 그러  
나 정치협상은 열리지 못했다.

53년 9월 선생님은 노영호를 부대장으로 한 부대  
에 소속되어 덕유산으로 옮겨갔다.

한편 마을에 살던 가족들은 경찰들에 의해 괴롭힘  
을 당해야 했다.

아버지가 집에 일찍 돌아오면 경찰들은 산에 가서  
딸을 찾아 보지 않았다고 괴롭혔고, 늦게 돌아 오면  
딸을 만나고 오느라 늦은 것이 아니냐며 사실대로 말  
하라고 고문을 했다. 아버지는 고문 후 유증으로 오래  
살지 못하셨다.



#### 지리산에 묻은 젊은 세월

'마지막 빨치산' 이었던 선생님이 체포된 것은 63  
년 11월이다. 50년에 입산한 후 13년이 지난 후였다.  
체포과정에서 선생님은 대퇴부에 총을 맞았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지서에 도착해보니 형광등 빛이 오렌  
지색으로 보였다 한다. 단 몇시간만에 다리는 완전 절  
단되었고, 그후 선생님은 한발로 생활해야 했다. 절단  
하지 않았다면 8개월이면 회복될 수도 있었을 한쪽  
다리는 선생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선생님은 무기를 언도받고 대구, 공주, 대전교도소  
에서 23년간을 복역하다 85년 8월 가석방되어 나오  
셨다. 선생님께서 가석방되어 나을 때 보호자가 된 사  
람은 공주교도소에서 결연을 맺었던 교도관이었다.  
결연을 맺고 얼마후 다른 직장으로 옮긴 그 사람은  
19년간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편지와 3천원씩을 영  
치해 주었다. 치약이나 칫솔을 사 쓰라며.

"에이구, 다리나 좀 해주지. 아직까지 사람을 이렇  
게 놔뒀소."

외발로 목발을 짚고 출소하는 선생님을 보고 그 사  
람이 한 첫마디였다.

출소후 선생님은 음성 꽃동네에서 3년간 생활하시  
다 88년 자립할 생각으로 꽃동네에서 나오셨다. 그러  
나 쉰을 넘긴 불구자 노인에게 '자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 피복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문제였죠. 감옥에서 일찍 자던 습관 때문에 밤에 야근을 못하겠더라고요, 내 참.”

공장에서 쫓겨난 선생님은 빨치산 동료인 박순자 님의 전화를 받고 89년 부산으로 내려가셨다. 처음 박순자 님으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얻어 생활을 하던 선생님은 150만원짜리 방을 얻고 부업을 시작했다. 가죽장갑의 가죽이 팽팽해지도록 가공하는 일이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의 대가로 돌아오는 돈은 고작 12만원이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온 선생님은 많은 허드렛일을 하며 겨우겨우 생활을 꾸려 가셨다. 구슬째는 일도 해보고,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겨울을 나며 식당에서 쓰는 티슈를 만드는 간이공장에서도 일을 했고, 공동변소 청소하는 일도 하셨다.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드라이아이스 다루는 일을 하다 손에 동상이 걸리기도 했고,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막일도 하셨다.

“그 즈음부터 머리에 염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염색을 하고나니 나이가 덜 들어 보이더군요. 아휴, 말도 말아요. 직장을 구하느라 여름 봄 악별을 다 쏘이며 다리를 질질 끌고 공단지역을 돌아 다니던 일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버스를 타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정류장 저만큼에서는 버스를 타려고 불편한 다리로 달려가다 보면, 버스는 이미 횡하니 떠나 버리기 일쑤였다. 몇 번을 그렇게 헛수고로 뛰고 나서야 겨우 버스를 탈 수 있었던 일이 다반사였다.

92년 또 다른 직장에 선생님은 취직을 하셨다. 양복걸이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한 달에 야근까지 해야 겨우 27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영세공장이었다. 그때 선생님은 늦게 퇴근을 한 후 또 다른 부업도 하셨다 한다. 몸도 불편하신 선생님의 어디에 그런 억척스러움이 숨어 있는지.

“한 1, 2년 정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자고 아침에 일

어나 다시 또 공장에 가서 같은 일을 하고,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그후 선생님은 후원회의 주선으로 지난 95년 8월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옮겨 와서 생활하신다.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집안일을 하고, 마당에 채소를 기르신다. 고추를, 상치를, 토란을, 호박을 모두 마당에 농사지어 밥상에 올린다.

선생님의 사진첩을 보았다. 공장에 다닐 때 짧은 동료들과 야유회를 가서, 짧은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 놀이에 열중하는 선생님이 거기에 있고, 단체로 노래를 부르는지 박수를 치시며 웃는 모습이 거기에 있고, 낙성대를 방문한 짧은 후원회원들과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거기에 있었다. 그 모든 사진에서 선생님은 언제나 가장 조그마하시다. 그 조그마한 선생님이 이 산저산을 헤치며 싸웠던 모습이 사진들 속에서 떠오를 듯도 하다.

그리고 통일되는 그날, 우뚝하게 큰 많은 짧은 이들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실, 작은 선생님의 모습을 마음 속으로 미리 찍어 사진첩 뒷갈피에 꽂아본다.



## 목요일의 외침

차정원

이글은 민가협 회원 차정원(34세, 장창호 씨의 부인·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1992년 구속되어 12년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씨가 목요집회에서 낭독한 글입니다.

**올**

해 2월 7일은 초등학교 임용고사 합격자 발 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던 그 합격 발표장에서 아마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 한 사람은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어 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리 속을 지나갔고 그 모든 일들이 봄 눈 녹듯 제 가슴속에서 즐거운 추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2년 추석날, 낳은지 3일된 딸아이를 제대로 안아 보지도 못하고 안기부에 잡혀가 국가보안법으로 12년형을 받은 남편 때문에 슬프고 암담했던 일도 좀더 담담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요. 벌써 4년을 꼬박 채우고도 8년이나 남아있는 이별의 시간도 수월하게 참아낼 것만 같은 자신감도 생겼지요. 아이가 10개월 될 때 타이소에 맡기고 학교를 복적해 다니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긴장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를 데려와 셧기고 기저귀를 뺄고 우유병을 삶으며 짬을 내어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갇혀있는 서울구치소로, 대구교도소로, 대전교도소로 면회를 갔다온 날이면 더 많은 눈물을 흘렸지요. 그래도 기적같이 졸업을 하고 무사히, 정말 무사히 합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동안 도움받은 분들께 면목도 서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며 보람찬 교직의 길을 가고자 했던 제 작은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8월 26일 임용순위 779번까지 교사 임용장을 받아 발령이 나는 초임교사들의 설레임이 있는 순간 저에겐 임용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200여명의 합격자 중 순위 631번인 저도 그날 임용이 되어야 했는데 제 번호는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남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는 사실때문이라는 것

을 알았을 때 저는 분노와 절망감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단지 국가보안법을 어긴 남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 ‘연좌제’가 아직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저와 같은 이의 삶을 짓밟는다면 과연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대로 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제 5살이 된 딸 애와 제가 가장이 없는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갈 일도 막막하거나 이렇게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제가 다시 한번 잘못된 선입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다면 도대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저의 이 피맺힌 가슴은 어디에서 풀어야 하는지요.

양심과 지성을 지닌 모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저의 삶이, 저의 권리가 정당하다면 이제는 감옥에서 늙고 있는 제 남편을 오직 그 남편의 아내라는 이유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저의 사정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임용이 되어 제 모든 열의를 바쳐 이 나라 2세 교육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이 국가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저의 임용을 더 이상 가로막지 않고 흔쾌히 열어주기만을 희망하고 또 희망합니다. 저의 정당한 권리가 이렇게 비인간적인 잔인함과 기계적인 행정처리로 무시된다면 그 것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올바른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거듭거듭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분들과 이 사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승리를 믿으며 호소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8월 30일

## 이른바 '한총련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폭력 보고서

경찰헬기 12대 동시 죄루액 살포, 하루 죄다 2만1천명 경찰 시위진압 동원, 2천여명의 경찰특공대 검거작전 투입, 하루 죄다 8차례 교내 해산작전, 하루평균 죄루탄 1천발 발사, 전경·학생 양측 부상자 1천5백여명 추정, 연행 5천8백48명, 구속 465명…

이는 8월 10일부터 11일간 계속된 8.15 통일대축전 행사 관련 이른바 '한총련 사태'가 남긴 사상초유의 기록들이다. 이번 한총련 사태는 이러한 진압방식, 연행자 수 등 진압의 양상 뿐 아니라 경찰폭력, 인권침해 상황에서도 과거 그것을 능가했다.

이 글에서는 8월 20일,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정, 체포,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지면이 허락되지 않아 민가협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실었고 그외 발생한 갖가지 인권침해, 공권력 남용의 사례들은 제외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 1. 시위학생으로 오인받아 불법체포, 불법감금, 구타당한 경우

8월 14일, 김남연(22. 고려대 3)씨, 선배집에 가기 위해 142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이대 후문근처에서 경찰의 강제정차로 버스에 탔던 다른 대학생 7명과 함께 경찰에 연행. 마포경찰서에 2일동안 불법감금.

8월 14일, 연세대 정문 앞을 지나던 130번 좌석버스 강제정차. 시위와 무관한 학생 9명을 강제로 내리게 한뒤 강서경찰서로 끌고가 2일 동안 불법감금.

8월 15일, 김석준(34. 노동. 대구 신천동)씨, 연세대 앞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전경들에게 구타당하며 연행.

같은 날 심동섭(25. 사업. 대전시)씨, 연세의료원에 입원중인 친구 병문안을 왔다가 연행. 강서경찰서에서 "시위대로 오인받아 불잡혀 왔다"고 사정했지만 경찰은 돌려보내주지 않음.

8월 16일, 이승준(경희대 3)씨,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 40여명에게 집단 구타 당한 뒤 서대문경찰서로 불법연행. 18일 풀려남.

8월 16일, 재일교포 김모(21. 남)씨, 연세어학당 앞에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 여권을 보여주었으나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불법감금.

8월 16일, 임철희(고려대 4)씨, 경찰의 교통통제로 버스에서 내려 연대 정문 앞을 지나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 남대문경찰서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구금에 항의하기 위해 묵비권 행사. 이에 담당형사는 "묵비권은 뺨개이나 행사하는 거다. 이런 뺨개이새끼는 죽어야 해"라며 임씨를 구타.

8월 18일, 명효(한신대 2)씨, 은평경찰서에서 불법체포된 사실을 호소했으나 담당 형사는 시위참여를 자백하라며 주먹으로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 자행. 또한 명씨가 연행 당시 경찰에게 구타당해 안경알이 깨지고 눈의 실핏줄이 터져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시위의 증거'라며 자백을 강요.

## 2. 과잉진압으로 인한 부상자

8월 12일, 오승준(22. 동아대)씨, 직격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

8월 14일, 서규석(24. 고려대 4)씨,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광대뼈가 부러지면서 왼쪽 시신경을 건드려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눈 실명.

8월 14일, 정인성(21. 대전전문대)씨, 경찰의 구타에 의해 머리부상.

8월 15일 유정협(21. 서울대 2)씨,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이빨 5개가 부러지고 입술주변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음. 현재 입 주변 신경마비 증상을 보임.

8월 15일, 김재홍(21. 연세대)씨,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음.

8월 16일, 김현기(20. 연세대 의예과2)씨,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왼쪽눈이 파열. 현재 실명위기.

8월 17일, 탁수근(24. 대전침례신학대 4)씨, 경찰의 직격최루탄 2발을 맞아 왼쪽눈과 턱아래에 중상을 입고 을지병원으로 긴급후송. 현재 실명위기.

8월 17일, 부산지방경찰청 사복경찰 20여명,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한국방송공사 사회부 김원장 기자를 둘러싸고 옆구리와 얼굴 등을 집단구타. 당시 김기자는 경찰이 학생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진압현장을 취재하던 중이었음.

## 3. 8월 20일 종합관 진압과 검거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우

- 경찰의 구타에 의해 부상당한 학생

양한승(동국대 2)씨, 10여명의 전경에게 집단구타당해 머리, 팔 등 온몸이 찢어져 21바늘을 페매는 중상을 입음.

조형규(서울대 3)씨, 종합관 건물 밖으로 끌려나오는 도중 전경이 군화발로 얼굴을 걷어차 이빨이 부러짐.

류혜정(여. 교원대 3)씨, 6층에서 건물 입구로 끌려 내려올 때까지 경찰의 긴 곤봉으로 머리를 계속 구타당해 22일 볼구속으로 풀려난 뒤에도 머리의 내출혈 등으로 통원치료중.

- 경찰이 쓴 최루탄 등으로 인한 부상자

오운식(서울대 3)씨, 경찰의 종합관 진압 당시 날라온 사과탄 파편에 눈각막이 손상, 각막 봉합수술을 받음.

이영희(여. 충북대 3)씨, 종합관 6층 강의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전경이 던진 폭음탄에 오른쪽 뺨이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치료중.

조은호(전국대 2)씨, 종합관 옥상에서 연행될 당시 바닥에 몸을 엎드려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으나 사복체포조가 최루탄을 분사하여 우측 다리 정강이에 화상을 입음.

- 경찰이 이물질이 깔린 바닥을 강제로 기어나오게 하여 부상당한 경우

종합관 옥상에서 연행된 윤영진(25. 서울대 4)씨,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구타하며 돌발을 강제로 기어가게 하

여 양무릎이 돌과 유리에 절려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음.

이상래(26. 인천대 2)씨, 문과대 입구에서 경찰에게 두팔을 잡힌 채 유리조각이 깔린 돌바닥에 양다리가 질질 끌린 채 연행되어 다리와 무릎에 심한 찰과상을 입음.

#### •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사례

종합관 옥상에서 연행된 ㄱ모(대학 2)씨는 “종합관 옥상에서 아래층으로 끌려내려 오는 과정에서 계단 어디선가 여학생들의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때려서인가’ 하고 생각했으나 ‘때린다고 소리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인가 어깨에 올리고 있던 여학생들의 손이 풀리더니 전경 한 명이 중간에 서서 내려가는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졌다”고 증언했다. ㅂ모(대학 4)씨는 종합관 5층 강의실에서 건물 입구로 끌려내려가는 과정에서 계단 옆에 줄지어 서있던 전경들로부터 3차례 가슴을 쥐어뜯기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 또한 ㅊ모(대학 3)씨는 종합관 옥상에서 건물 로비까지 끌려 내려오던 중 6차례 전경과 사복체포조들에 의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

#### 4. 수사도중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경우

8월 20일 종암서로 연행된 강정환(성공회신학대1)씨는 형사들이 “쇠파이프를 잡았다”고 허위자백할 것을 강요하며 당시 조사실에 있던 5-6명의 남학생들을 의자에 앉힌 채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코에 물을 봇는 등 물고문을 하였다. 이원재(인하대 2)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당시 담당 형사 최모씨에게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을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며 1시간 30분 동안 쪼그려뛰기 700회,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곤봉을 끼워넣고 무릎을 짚어 한 후 허벅지를 짓밟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

또한 김만수(서울대 1)씨와 설재우(고려대 3)씨는 8월 20일, 서부경찰서 담당 형사의 강압에 의해 다른 5명의 남학생들과 함께 쇠파이프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은 이를 증거로 김씨와 설씨를 구속했다.

한편 8월 20일 강남경찰서에 연행된 김00(여. 한양대 졸)씨는 경찰이 “옷을 벗기겠다”며 위협해 화염병을 제작했다고 허위진술하여 구속되었다.



## 8월 구속된 양심수

### 8.15 한총련 사건

장광수 한규석 김재종(보암산업) 오현상(환경미화원) 심성원(무직) 임희성(강남대) 손명기 박종환 김대호(강원대) 양성주 인병문 조은호 정홍기 서주호(건국대) 윤화중(건국대 충주배움터) 김진명 꽈용복(건양대) 이승현 이종일(경기대) 조지훈 강희춘 라정한(경기대 수원 배움터) 오영진 전영민 여태희 이우종 고남순 김병준 이상해 고정봉 이영도(경북대) 김민수 꽈진욱 장기성(경북산업대) 박경홍(경성대) 이병민 박대성 유현목 박정훈(경원대) 박정훈(경원전문대) 정용대(경희대) 배종훈 이승재(경희대 수원배움터) 장동기(경희호텔전문대) 강병일 김정호 김동원 양영호(계명대) 박경호 박정호 허성민 박해규 하어영 전균우 박성욱 설재욱 권용찬 김종귀 김영진 김남형(고려대) 우한철 윤명원 정경호 이은영 송지혜 이경호 김규태 지영철 이시구 박기선 이성우(고려대 서창배움터) 강광훈 류지웅(공주교대) 이진호 이윤희 장수아(공주대) 정구한 송채호(한국과학기술대) 김영찬 김규환 김원식(광운대) 권태윤 김관선 김재철 최선영 탁정석 정주영(광주대) 이상원 김규식 이지용 유엽 박성철 김승기 고대권(국민대) 강현용(금오공대) 김형남 정우길(나주동신대) 박상무김세중 유정호 김웅태 홍은철 이광열 김성우 김병진 이세현 김창학 김상도 권정욱 정찬무 박진빈(단국대) 설중호 김상현 김우형 김광일 이철희 강성남 이종수 이태훈 김기원 배태준 김동관 이종성 배성훤(단국대 천안배움터) 강상구(대구교대) 이진권(대구대) 박병남 윤성진 서지원 이상인 황인구 조달현 이국한 김재영 유민우 박선영(동국대) 선동근 송현섭(동신전문대) 김현수 전영진 김성주 문지택 유충복 최언석 윤기진 정옥재(명지대) 고기영(명지대 용인배움터) 문경재(목원대) 남현민 김영식 정현철 박순희(목포대) 신성용 김영경(밀양산업대) 정승범 이동수 서정관 안준범 이순신 류병천(배제대) 신미영(배화여전) 김영호 고재필 박

민현(부경대) 장필태 김동희 강지웅 노정현 박창선 안성태 최영락 이대호(부산대) 조성건 백승훈 박일영 이광인(부산동아대) 표범중(부산동의대) 손상은(부산외국어대) 허훈(부천전문대) 양창범 이진우(상지대) 이석원 문형구 오승진 고세준(서강대) 윤영진 황지원 장우석 전영동 전성천 최승재 강현우 권인천 윤혜진 오용훈 김영진 박재영 김정훈김은석 유정숙 최동기 선정우 권준수 김민호 정부목 김동길 지성태 김만수(서울대) 정정욱 이일영 모계영(서원대) 민병국(성공회신학대) 남광우 안장현 윤군남 하영석 한숙희 홍성훈(성균관대) 조영호 조성훈(성균관대 울전배움터) 양내희(성신여대) 신일선(송원전문대) 신영화(숙명여대) 이영재 이영래 양찬열 신영수(순천공전) 이영호(순천대) 이진호 윤형식 이용식 정신영 소형주 조용훈 강성은 김진용 홍사열 임화수(순천향대) 황항연 김정곤 김창수 박아형 박인진 김신덕 조현주 도기영 최경일 나현석(승진대) 변영섭 조남경 조성웅(서울시립대) 박영재(신구전문대) 김상현(아주대) 주계윤(여수수산대) 권태훈 이도윤 정윤재 정영일 신승현 조건수 전영훈 유정재 문병두 주용식 맹계원(연세대) 김준영 이승재 김강식 최진영 이광민(연세대 원주배움터) 김맹철 김형주 권혁구(영남대) 이문화(외국어대) 강석헌 최진선 배현석(외국어대 용인배움터) 채수용 김성수 지갑필 박근 임장현(원광대) 장재혁(유한전문대) 김지호(이리공전) 전희련(인덕전문대) 전성대(인제대) 조현재 전재영(인천교대) 김봉애 한지선 이환영 이상래 배상돈 이덕기 안희열 주재준 문종권 최현호 김현호(인천대) 김형배(인천전문대) 구본우 이원재 안덕현 이윤규 이혁재 윤석우 정준용(인하대) 나원주 김형태 반호진 정종천 백정철 이승철 백승일 오용운 김원득 김태현 오현철 박진환 박현정(전남대) 김경석 전준형(전남전문대) 이태환 김오영 윤석태 김동섭 심주현 임성종 김진욱(전북대) 송일섭 나지성 김영민(전주대) 김대일(전주우석대) 김상범

김수길 장석문(제주대) 강성민 문성호 이동건(제주 전문대) 박문선 김동준(조선공전) 송종진 윤대충 오민준 서진남 박현정 박주현 이정원 신영관 박미라 문갑태 이영호 김우찬 윤영광 흥명의 명신재 김기창(조선대) 성명훈 이기우 이희석 나정채 강상우 김정규 이태준 정명구 박정열 임근연 문광석 김재범 김민수 최재혁(중앙대) 박광채 최동식 김대용 조병옥(중앙 대 안성배움터) 이종대 조민규 박태근 문성수 강남석 (진주경상대) 김승현 안승구(창원대) 이명기(창원전 문대) 한희정(청주교대) 전병찬 연승우 김례식 강홍 배 이정섭 박주원 윤정식 강한석(청주대) 조일식 이지운 이진희 박경철 박병현 이재원 한상길 강창완 나형선 송승의 박선호 김희현 길인석 김왕균 정해권 전기삼 김용찬 윤종혁 정상민 이억수 장기정 박치정(충남대) 이병섭 박기수 박노남 정혁섭 하덕천 강현식 (충북대) 김창동(침례신학대) 강성현 이성우 김경희 서동석(한국교원대) 이병구 이광백 정태정 최용석 김병수 안동석 김남룡 박치현 박찬규(한남대) 고대규 최정기 이권구(한림대) 김동진 정재훈(한성대) 홍두빈(한성대) 김준경 손일식 양영주(한신대) 신정호 김재규 노봉석(한양대) 김인 김은영 이우중 윤지영(한양대 안산배움터) 조영민 우치성 박철(호남대) 김용기(호서대) 박세호 김대강 성기훈(홍익대) 박관홍 이동현(홍익대 조치원배움터) 조한주(효성카톨릭대)

#### 8.15 이후 학생 구속양심수

권중환(강릉대 총학생회장) 윤영준 함영석 이수진 (강원대) 최용혁 박충호(경희대) 이준식(계명대 총학생회장) 김규식(국민대) 하현문(나주동신대) 심민규 이종철(단국대) 안상묵(단국대 총학생회장 서남총련 의장) 정선(여성여대 총학생회장 서총련 조통위장) 김동윤(부산대 총학 부회장) 조성건(부산동아대) 최원영(부산동의대 총학생회장 부경 서부총협 의장) 김태현(부산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신현승(부산인제대

총학생회장) 박진호(상지대 자주대오 사건) 최진우 (서울대) 현우진(성균관대 95년 총학생회장) 김성훈 (연세대 학생연대 5기 의장) 권태훈(연세대) 김형규 (외국어대) 노영권 나운학(전남대) 오완영 김문수 김윤규 이기성 조영삼 신세익 허윤주 김정희 서진용 전희련 정하신 고영철 김대성 김미진(조선대) 김범기 강주용 송순호(창원대) 김성하(한양대 92 조통위 간부) 장길상(호남대)

#### • 방북자

김하기(소설가. 방북)

#### • 노동 구속자

동수원병원 - 박미진(노조 위원장) 한문자(노조 부위원장) 정미아(노조 조직쟁의부장)  
아시아자동차 - 조남일(노조 위원장) 윤주철(노조 조직실장)  
한진중공업 - 김경춘(노조 부위원장) 김용국(노조 사무국장) 박재근(노조 위원장) 김양수(노조 조직부장) 박성호(해고자)

#### • 농민 구속자

김봉규(양양군 농민회장)  
여주군 농민회 - 최승웅(농민회 고문) 신동선(농민회 부회장) 백규현(농민회 회장)

#### • 철거민 구속자

배영민(영흥도화력건설반대대책위 사무총장)  
박정규 안두환 김용선 김경숙(철거연합. 금호 8구역)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8/1 민가협 146회 목요집회. 애청 가족 사례 발표, 꽃다지 노래공연, 앰네스티 뉴욕지부 대표들, 일본미군기지 되찾기 본부 회원들과 함께 함.
- 8/2 한반도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법정학련 통일축전, 서총련 노래 한마당 행사가 시립대에서 열림.
- 8/5 서울지법 형사 합의 30부(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12.12, 5.18 및 비자금 사건 결심공판이 열려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 등 반란과 내란 수괴 등 혐의로 16명에게 무기에서 12년까지 구형.
- 8/6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명기)은 한총련 소속 류세홍(조선대4), 도종화(연세대4, 휴학) 두 학생을 법 청학련 중앙위원회 남쪽대표로 과격했다고 발표.
- 8/8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첫날. '캠페인 선포식' '양심수 석방 1996인 선언식' '양심수 석방을 위한 끓인 이들의 행진' '하루감옥 체험(이장호 감독, 천정배 의원, 변영주 감독, 김칠준 변호사, 황상익 교수, 이영우 신부, 나핵집 목사)', '목요집회'가 열림.
- 8/9 캠페인 둘째날. '하루감옥 체험(이양원 변호사, 김영현 작가, 김선수 변호사, 유송화 구의원, 최은식 신부, 정숙자 목사, 안도현 시인)', '양심수 자녀들과 함께 하는 희망그리기(김수정, 이희재, 박재동, 신영복, 이구영, 강우근, 최호철, 유승하, 전승일, 우만연, 홍성담 화백 참가)', '부활, 제3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민가요제'가 열림.
- 8/10 캠페인 셋째날. '하루감옥 체험(김순태 교수, 정성길 원불교 교무, 이유정 변호사, 정희섭 문화평론가, 박문식 공인회계사, 배기영 인의협 대표, 라문성 교무)', '아빠 보고싶어요' 공연이 성공적으로 진행.  
• 대전 YWCA에서 '양심수를 위한 통일의 밤' 행사가 대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서대전 일사랑 청년회 등 주관으로 열림.
- 8/11 유가협 창립 10주년 기념 회원수련회가 '나눔의 집'에서 12일까지 열림.
- 8/13 제6차 법정학련 통일대축전 통일한마당이 연세대에서 열림. 경찰, 연세대 주위에 1만7천여 병력으로 학생들을 출입을 봉쇄.  
• 김우석 내무, 안우만 법무, 안병영 교육부장관, '불법시위 엄단조치' 담화문 발표.
- 8/14 제7차 범민족대회. 제1회 법정학련 총회.  
• 경찰, 헬기 11대와 병력 51개 중대 6,000여명으로 연세대에 진입, 집회 저지에 나서 학생 350여명을 연행하고 학생회관 등을 압수수색.
- 8/15 경찰, 통일축전 마지막날 행사 저지위해 헬기 12대, 병력 6,000여명이 3차례나 연세대에 진입해 최루액과 다연발 최루탄으로 공격, 행사를 무산시킴. 많은 학생과 경찰이 부상. 학생 600여명 연행.  
• 민족회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8.15 51돌 기념대회.
- 8/16 정부, 신한국당이 한총련 주도세력을 발본색원,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들에 대해 강경진압할 방침을 발표.  
• 경찰, 4,000여 병력과 6대 헬기로 연세대에 진입. 학생들은 이과대와 종합관 등으로 쫓겨들어감. 경찰, 연세대 주변에 170개 중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막음.  
• 경찰, 한총련 중앙위와 조통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  
• 민가협 회원들, 연세대 정문에서 학생들의 안전귀가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 8/17 민가협 회원들이 그레이스 백화점 앞과 연세대에서 학생들 안전귀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함.  
의료인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먹을 물과 치료약 등을 넣어주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함.  
• 경찰, 4번째 연세대에 진입, 건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최루액과 최루탄을 연속 발사.
- 8/18 대검찰청, 건물안 학생들을 극렬 가담자로 분류해 전원 검거,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
- 8/19 전국연합등 25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한총련 사건 비상대책위를 구성, 평화적 해결을 촉구.  
• 박일용 경찰총장, '폭력시위에 총기사용하겠다'고 발표.  
• 경찰, '안전귀가'를 요구하는 민가협, 유가협 회원을 폭력으로 강제연행.  
• 국민회의와 민주당 의원 34명, 학생들의 귀가보장과 부상학생의 치료 및 의약품, 식품등의 반입을 허용 하라고 촉구.  
• 여성단체연합 회원들, 한총련 학생들에게 여성용품 등을 반입하려다 거절당함.  
• 학부모들, '연세대 감금 학부모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안전귀가보장 등을 촉구.  
• 양심수 후원회 8월 운영위원회, 7월 사업, 재정보고와 '96회원 여름수련회' 무기연기 등을 협의.
- 8/20 경찰, 5시 45분에 84개 중대 1만여 병력과 헬기 등으로 종합관 건물을 집중공격해 학생 2000여명을 전원 강제연행.  
• 이공대 건물에 있던 학생 2500여명, 9시 45분경 연희동 방면으로 탈출. 많은 학생들, 경찰에 연행.  
• '연세대사태 평화적 해결 비상대책위', '한총련 과잉진압 및 탄압 비상대책위'로 전환, 학생연행 중단과 석방을 촉구.  
• 민가협 채은아 간사, 연희동에서 경찰에게 불법연행.  
•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김승훈, 노무현, 이효재씨 등 145명이 9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는 노씨들에게 각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명동성당에서 '한총련 탄압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시민, 학생등 3000여명이 모여 한총련 탄압 규탄 결의대회.
- 8/21 채은아 간사, 저녁에 무혐의로 풀려남.  
• 종합관 진압과정에서 중상을 당한 김종희 이경이 저녁에 숨짐.
- 8/22 『후원회소식』58호 발송.  
• 5곳의 교도소에 『말』 9월호 발송.  
• 민가협 목요집회(148회). 한총련 탄압사례 발표와 꽃다지 노래공연.  
• 기독교회관에서 한총련 사건과 관련하여 목요기도회를 가짐.  
• 한총련 사건으로 연행당한 학생 5,848명 가운데 462명이 구속, 3,341명 불구속 입건, 373명 즉심.
- 8/23 대법원 형사3부, 89년 이내창씨 의문사 사건보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던 이공순(한겨레신문 기자)상고심에서 무죄확정 판결.
- 8/26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김영일 부장판사)는 1212, 5.18, 뇌물 사건 등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사형, 노태우·22년 6개월, 그외 피고인에 대해서는 10년~2년씩을 선고

8/27 『후원회소식』59호 편집회의.

- 박일용 경찰청장, 국회 답변에서 화염병 시위 벌칙강화와 집회신고때 시설주의 장소사용 승낙서 첨부 등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8/28 경찰, 새벽 4시 35분부터 6시 50분까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부산대 등 11개 대학을 압수수색하여 학생 347명을 영장없이 강제연행.

8/29 민가협 149회 목요집회, 한총련 통일축전 탄압과 인권침해 사례 발표,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의 노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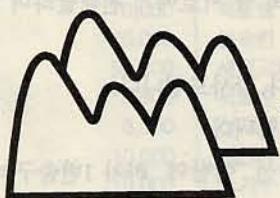
- 경제 5단체, 학생시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채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성명 발표.
- 경찰청, 조선대, 영남대 등 23개 대학에 압수수색, 학생 258명을 강제연행.
- 5년이상 복역중인 장기복역양심수 92명에게 영치금을 보냄.

8/30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연세대를 방문하고 한총련은 자진해산해야 한다고 주장.

- 북쪽 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 대리로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뇌출혈로 치료 받고 있는 비전향장기수 출신 김인서 노인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

8/31 민가협 96년 5차 운영위원회, 96년 양심수 석방 캠페인을 총정리 보고하고, 한총련 학생의 대량구속 등에 대한 대응을 협의.

- 민교협(공동의장 김상곤, 하일민, 서창호)은 한총련 사태를 공안정국 조성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정면 대응키로하고, '공안책동저지와 학원자유수호를 위한 시국토론회'를 잇달아 열기로 함.
- 낙성대 만남의 집, 무연고 출소 선생님들께 생활지원금을 드림.
- 미국수도장로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서경원 전의원, 김태룡 씨 자녀에게 전달.



9월, 북한산이 부르고 있습니다.

8월에 예정되었던 '96 회원 여름수련회는 '한총련 사건'으로 못 가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뜨거웠던 8월을 지나 하늘높은 초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두달동안 못 만났던 얼굴들, 한눈에 서울 곳곳을 내려다볼 수 있는 보현봉에서 만납시다.

- 언제 : 1996년 9월 22일(일) 오전 10시
- 어디로 : 북한산(명창동-일선사-보현봉-대성문-정릉)
- 모이는 곳 : 명창동 북악파크(올림피아 호텔 맞은 편) 버스 135번, 135-1, 8번
- 준비할 것 : 회비 3,000원, 도시락

## 알 릴

큰물 피해로 고통받는 북녘동포에게 겨레의 따뜻한 정을 보냅시다.

7,8월 한시적으로 벌렸던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웃 고통을 나누는 일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함께하는데서 가능할 것입니다. 뜻은 있었지만 아직 성금을 하지 못한 회원께서는 작은 정성을 모아 성의있게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낼곳 - 제일은행 159-10-0011411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 회원소식 .....

- 이낙호 회원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8. 15.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일교포 이현치, 김태홍씨가 16년만에 가석방으로 그리운 가족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민가협과 천주교 인권위 등 50여명이 교도소 앞에서 환영모임을 가졌습니다.
- 8. 25. 감리교 동대문교회 윤정미 전도사님 외 여러분이 낙성대 '만남의 집'을 찾아 주셨고, 큰성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8. 26. 대구 김종호 선생님이 서울에 오셔서 권양섭 선생님 문병하고 가셨습니다. 서울까지 올 수 있는 건강에 감사드리고, 더욱 건강하시길 빕니다.
- 미국에 계신 알라스카 NAME선생님이 박영희(방북사건, 1992년 구속)씨의 딸 서로에게 전해달라며 1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탁무권 운영위원이 사무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프린터기를 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혜미 회원이 베를린으로 영상공부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 김수룡 선생님께서 고회를 맞아 10월 20일(일) 12시, 메트로부페 8층(분당선 '야탑역' 하차 1번출구 바로 앞)에서 고회연을 여십니다. 문의처는 0342-708-1700.
- 제3회 회원 역사기행 이 11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

김영록(도봉구 창2동)

김동필(금천구 독산3동)

최학분(인천시 주안5동)

김창희(종로구 적산동)

조철호(청주시 북문로 3가)

김미경(양천구 신월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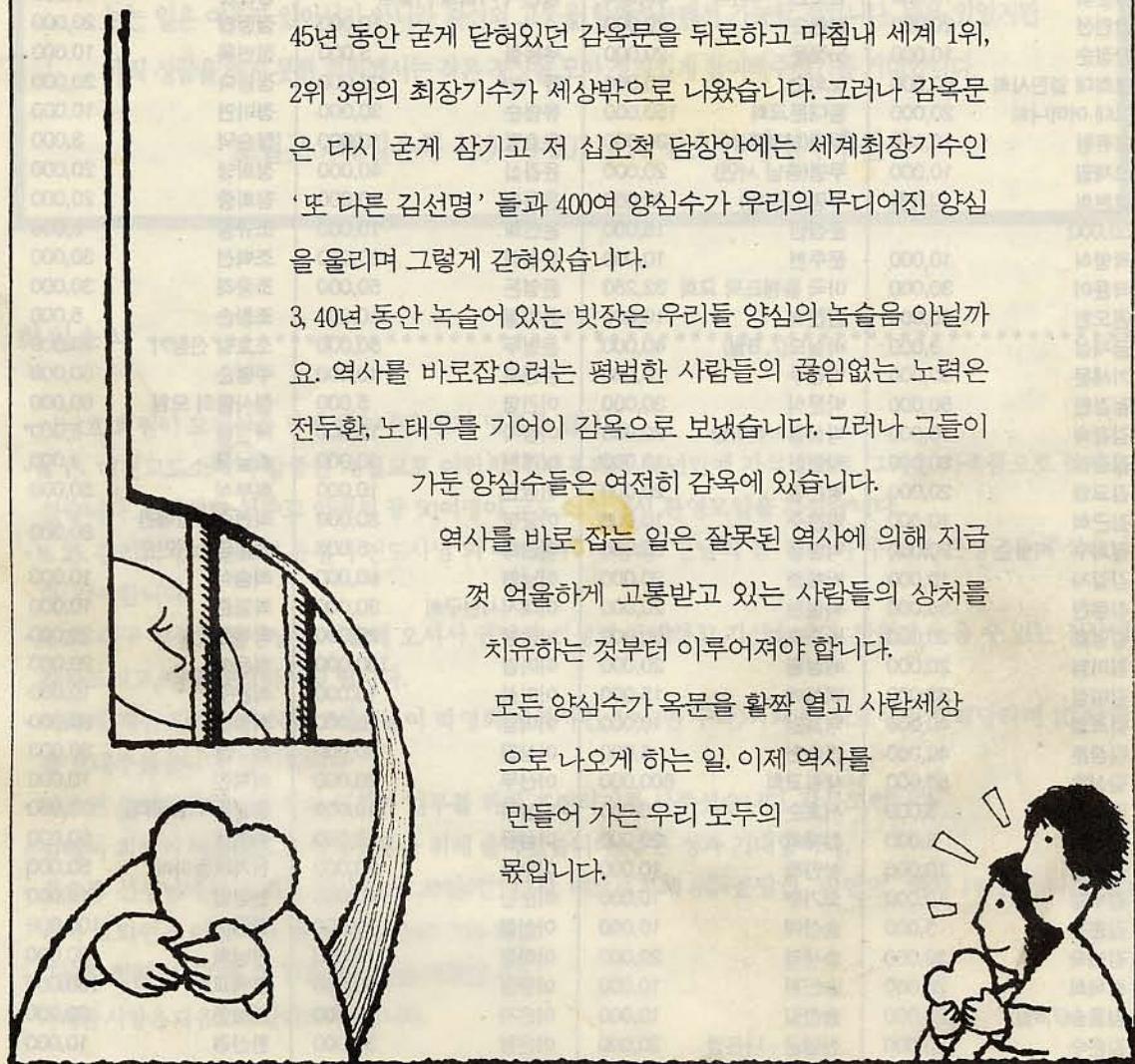


##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4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뒤로하고 마침내 세계 1위, 2위 3위의 최장기수가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옥문은 다시 굳게 잠기고 저 십오적 담장안에는 세계최장기수인 '또 다른 김선명'들과 400여 양심수가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을 울리며 그렇게 갇혀있습니다. 3, 40년 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들 양심의 녹슬음 아닐까요.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전두환, 노태우를 기어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둔 양심수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잘못된 역사에 의해 지금껏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양심수가 옥문을 활짝 열고 사람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일.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의 뜻입니다.



###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넘도록 분단의 찬살 아래 갇혀있던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둘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 신탁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 지로번호 7619407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